

연중 제16주일
(제2회 농민주일)

제1독서 : 예레 23, 1-6

제2독서 : 에페 2, 13-18

복 음 : 마르 6, 30-34

순정이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에페 2, 13)

강
론

죽음에 이르는 병



김동준 신부/나바위 성당

흔히 선진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일상의 삶에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몫을 분명히 챙기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기 몫에만 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게 된다. 때로는 자신의 몫을 키우려고 남의 일에 경우 없는 간섭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크게 다르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에는 아름다운 전통이나 바람직한 가치관도 손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모두 공동체 정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상치된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가 증거 해야 하는 삶으로 나눔, 섬김, 친교라고 끊임없이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의 입장과 처지에 오셨고 오늘 독서에서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셔서 평화를 이루셨기'(에페 2, 14)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출애굽이다. 이기주의는 가장 어리석은 자기 방어 수단이다. 이기주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기주의는

스스로 생명과 은총의 탕줄을 끊는 행위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느님의 통치권이 실현되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다. 이기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모든 대상을 사물화(私物化) 내지는 도구화(道具化)시키는 데 있다. 갈등과 분쟁은 자연스런 결과다. 신앙생활도 결국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을 도구화시키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은 역설(逆說)의 시대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비는 세상이 되었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나아가 하느님이 인간에게 비는 세상이 되었다.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 - 이기적인 삶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방향전환이다. 그래야만 산다. 그래야만 평화도, 행복도 가능하다.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은 이 변화를 위한 하느님의 기다림이다.



청와대 세입자

모 보 일(즈가리아)

올해는 전세계가 선거 열풍으로 달아 오르고 있다. 새해 벽두 1월 2일 감비아 총선으로 개막된 지구촌 선거 열풍은 12월 18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끝으로 마감된다.

21세기를 향해 올해 치뤄질 지구촌 선거(대선·총선)는 1백여개 나라에서 1백52건, 그중 3분의 1가량이 상반기에 치뤄졌고 3분의 2가량을 하반기에 치루게 돼 지구촌 열기는 연말이 가까울 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상반기중 선거를 끝낸 올해 지구촌 선거의 특징은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경제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불만으로 반영됐다. 5월 1일에 치뤄진 영국 총선의 경우 유권자들은 18년에 걸친 보수당의 집권을 마감하고 젊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의 경제성장률과 보수당내 일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표로 단죄한 결과이다. 몽골(5월 18일)대선은 오치르바트 대통령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심판이 공산당의 후신인 인민혁명당 후보의 압승을 불러왔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총선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고 이달 6일에 실시된 멕시코의 중간 선거에서도 경제회생을 공약한 야당의 약진으로 68년간 지속된 집권 제도혁명당의 장기독재에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총선에서도 '실업대책'을 내건 조스팽이 이끄는 좌파 연합이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이곳은 승리를 예상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 망신을 준 곳이기도 하다. 아무리 오래 집권하는 정당이라도 국민생활에 태만하거나 건방을 부리고 오만하면 몰아낼 수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의 대표일뿐 그이해도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을 '엘리제궁의 세입자'라 부르고 총리를 '마티뇰의 세입자'라고 한다. 이는 임기동안 거주하는 대통령과 총리 관저가 그들 소유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빌

려 산다는 것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록 선거로 대통령과 총리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주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권'이라는 과대 포장된 용어를 쓰고 있다. 후보 경선자들을 가르켜 용(龍)이라고 하질 않는가. 유권자들 스스로 주인노릇을 포기한 꼴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권력을 나누어 갖게 돼있고 권력간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이다.

그래도 우리에게엔 대통령의 절대권력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병'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치뤄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매스컴은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나랏일이 잘될리 없다.

과거 우리는 자의견 타의견 간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던가. 두 눈을 부릅뜨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주인'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 하는 '청와대 세입자'를 뽑아 우리도 지도자 한번 잘 뽑았다고 뽐내보자.

숲정이 산책



내가 제일 많이 닳았지요?

함께 살기 위하여...



전주교구 농민회장 송남수(라우렌시오/54세 장계본당)씨를 만나 오늘의 농촌과 살길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언제부터 농민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지요?
- 1979년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후 오원춘 사건 때 농민의 한사람으로 중앙성당의 집회와 전동성당에서 있었던 농성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농민회에 가입했고 지금은 농민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리고 농촌마을의 유기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농촌인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 마을의 가구수가 약 80호 입니다. 예전엔 제법 큰 마을이었죠. 그런데 현재 인구는 200명이 채 안됩니다.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5세로 저는 젊은편에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농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기농업과 수입농산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몇 십년씩 비료를 치던 논을 유기농 - 지금은 생명 농업이라고 합니다만 - 으로 바꾸면 3년간은 먹을것도 안나옵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농사를 짓는 수고는 직접 지어본 사람이 아니

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농산물은 수확 후에는 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배할 때는 물론 오랜 유통기간 동안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에 절인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직접 생명과 관계되는 식량을 수입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기농사 현장을 한번 가서 본다면 누구나 그 수고와 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 요즘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농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은 비싸다는 생각때문에 값싼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생산비를 외국 농산물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편에서는 자기들이 지은 농산물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농업이 사라진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는 식량다국적 기업에 의해 식량속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기대하기 보다는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주일 강론때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 주신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특집

농부, 하느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것이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둡니다.
한 알 심으면 한 포기가 나고
두 알 심으면 두 포기가 납니다.
수 알 심으면 수 포기가 납니다.

농민은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농업은 가장 정직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은 가장 정직한 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위선자들을 책망하시고 욕 하십니다.

하느님은 농부이십니다(요한 15, 1).
그분은 정직합니다.
거짓을 살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는,
노동하는 분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농민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룩합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분입니다.

김 승 오 신부
한국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K-랜드 하계 시즌 오픈

- 숲속의 쉼터 테마파크(넓은 주차공간)
 - 회전검둥 20여종의 놀이시설 액션파크
 - 대형 야외풀장 덱 스프링(길이 50m)
 - 민속 카페 그린하우스(식음코너)
 - 황토방 방가로 애플가든(외식코너)
 - 다양한 패스트푸드 스노우하우스(간식코너)
- 윤병순(요셉) 김혜경(레지나)
☎ (0658) 44-2862
위치 : 금구 목우촌 앞

문 병 원

직장여성을 위한 공휴일이 없는 병원
(평일 후9시, 토요일 후5시, 공휴일 후1시)

이 사 장 문지식(레나도)
병 원 장
상무이사 기순종(안젤라)
마취과장
☎ 82-8833~6, 84-2918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천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서 을 의 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도시·농촌이 하나되어 생명의 손길을 마주 잡읍시다”

이 글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 담당 정명조 주교가 제2회 농민 주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의 요약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절박한 밥의 위기, 환경의 위기, 생명과 건강의 위기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생명산업이며 생명의 일꾼인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주일은 단순히 농민을 격려한다는 차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밥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결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 형제자매님들은 하느님의 창조섭리를 대행하는 생명창조의 일꾼으로서의 자리에 부합하는 생산을 통해 우리 교형자매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더욱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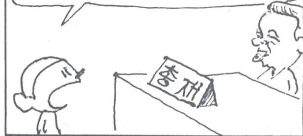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본당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먼저 도시와 농촌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본당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소공동체 운동이 생활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밥상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본당마다, 소공동체마다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시와 농촌의 연대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실천이어야 합니다. 농민주일을 맞아 모두 함께 뜨거운 여름의 햇볕아래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지금도 논밭에서 일하고 있을 농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고마움과 중요성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농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십이 (1249) 김병오

신한국당 경선후보자들이
돈살포, 흑색선전, 인신공격등..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왜가만히
있는거요?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 싸우는 연습을
시키고 있는거야..



강력한 야당후보와
싸우며 써먹으라고..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1. 일시 : 1997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2.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3. 문의전화 : (02) 3673-2525
4. 대상 : 외방선교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남·녀)

성바오로 복클럽 회원모집

교회출판매체 통신판매

특전 : 10%할인, 우송료 본사 부담,
도서정보제공

주문 : (02) 986-1361

FAX (02) 986-1365

L G 에 어 콘

플라즈마 공기정화 에어컨
10개월 무이자+D/C

백제로 빙상경기장 앞
(주) 삼 화 공 조

데레사 종합화장품

조 현 숙(베르베루아)

전동성당 사거리
구 성모병원 1층

☎ 83-5319

이철수 사슴목장

녹용, 녹혈, 녹종탕
사슴분양 · 사육상담

전주박물관 700m 전방
정진주유소 좌측

이철수(토마) · 문봉례(안나)

☎ 224-3070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드레스 40만원

〈특시도·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웨딩모토 · 비디오 촬영 원판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사목 단상

김제에는 극장이 없다.



송영진 신부/요촌 성당

김제에는 극장이 없다. 만들어도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다. 극장이 없다고 해서 불편해 하는 사람도 없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가까운 전주나 익산으로 가면 그만이다. 극장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소 가정방문을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관계 당국의 통계 수치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도 그 통계대로라면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수치는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다. 교적마저도 대도시 본당으로 다 빼가고, 공소 신자들의 교적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자식들이 하나도 없느냐고 묻는 실수를 여러번 저질렀다. 교적에 노부부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가족이 정말로 없는 줄 알았었다.

김제에는 극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도 없다. 여기와서 처음에는 교리교사로 봉사할 사람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다. 지금 이곳의 교리교사들 중 상당수가 직장인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헌신 봉사하는 그들에게서 그나마 농촌교회의 희망을 본다. 여름신앙학교 기간에 맞추어서 휴가를 내겠다는 그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대학생 교리교사들도 모두 다른 도시로 통학하는 사람들이다. 대도시 교리교사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만큼 더 많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마운 일이다.

그동안 나는 보좌신부로만 5년째 생활하면서, 야곱이 “저는 언제쯤이나 제 일이라고 해 보겠습니까?” (창세 30, 30)라고 했던 것 같은 불만을 늘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었다. 또, 줄곧 도시 본당의 보좌로서 청소년 사목을 주로 하면서 사목활동의 폭이 자꾸 좁아지는 것도 느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가지 유익한 배움의 시기가 되고 있다. 아직도 보좌이긴 하지만 그 어느 도시 본당보다도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농촌신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있다.

지난번 모내기철에는 신자들 방문하기도 미안할 정도였다. 조금도 쉴 틈이 없는 농사일이 주일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쉬게 놔두지 않는다. 모내기 때문에 주일미사에 빠져서 큰 죄를 지었다고 가슴을 치는 할머니들과, 야외로 놀러가느라고 주일미사를 빠지고도 죄없다고 큰 소리 치는 도시사람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본당 규모를 고려해서 도시의 큰 본당으로만 보좌신부를 보낼 것이 아니라, 농촌본당이나 공소가 많은 시골본당으로도 보좌신부를 파견하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퀴즈문제 하나 : 하느님의 직업은?

답 : 농부

근거 :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한 15, 1)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모든 농촌에 극장도 대학교도 각종 문화시설도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고 입구

☎ 87-7717~8

가격 저렴 품질향상

사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익산시 중앙동 1가 13-10

☎ (0653) 54-9525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무우, 백김치,
돌산 갯김치, 깍두기
제래식품-원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고려주단 확장이전

한 복·이 불

김 삼 레(소 피 아)

기원오피스텔 옆

☎ (0652) 88-1902

교구소식

- ❖60주년 준비위원회
 - 때 : 7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사제 평의회
 - 때 : 7월 22일(화)
 - 장소 : 교구청
- ❖전주사회교정사목후원회미사
 - 때 : 7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교구 설정 60주년 청소년 신앙대회
 - 때 : 7월 25일(금)~27(일)
 - 장소 : 수류 청소년 야영장
- ❖강천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때 : 매주일 오후 4시
 - 장소 : 강천각 호텔 이층 세미나실
- ❖장안산 공원(방화동 계곡)미사
 - 때 : 매주일 12시 30분
 - 장소 : 덕산 초등학교 교정
- ❖지리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때 : 매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인월공소(31-0091)

- ❖무주구천동 관광 야외미사
 - 때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무주리조트 정문
- ❖제19차 선택주말
 - 때 : 8월 1일(금)~3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참가비 : 45,000원
 - 신청 : 청소년 교육국(85-0041) 선택대표(85-3637)
- ❖M.E 67차 주말모임
 - 때 : 7월 25일(금)~27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M.B.W)기초 과정 개최
 - 때 : 8월 18일(월)~23일(토)
 - 장소 : 과천 성모 영보의 집
 - 참가비 : 13만원
 - 신청 : 조정오 신부(0653) 53-7187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7월 25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 ❖새사제 인사 발령
 - 안봉환 신부 : 창인동 성당 보좌

성 소 모 임

- ❖살레시오 여자 수도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5시
 - 장소 : 정읍 연지동 성당
 - 문의 : (0681) 33-2578
- ❖동정 성모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소 : 금암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53-0325
- ❖부산 성 베네딕도 수도원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44-0094
-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북한 형제돕기 성금 접수

송천동 성당	934,490	노송동 성당	1,554,770	양창남	100,000
중 앙 성당	980,900	(2차, 저금통)		전주레지오단원일동	
옥 봉 성당	1,452,970	금 마 성당	241,500		8,783,010
(2차, 저금통)		(2차, 저금통)		교구청 안내실	6,170
부 안 성당	1,460,000	장 계 성당	550,000	정화APT주민들	218,000
여 산 성당	593,130	시기동 성당	1,500,000	사회복지사무실	21,590
대 야 성당	435,000	송학동 성당	560,900	익명	1,030,100
하 동 성당	100,000	둔율동 성당	350,680	박춘근	20,000
조 춘 성당	548,210	합 열 성당	864,200	성심여자중학교	413,640
수 류 성당	162,620	요셉회	50,000	함열성심어린이집	369,840
복 자 성당	373,500	익명	100,000	함열 읍사무소	85,500
(2회)		성언복지원	100,000	소 계	24,401,590
		성모의원환자	440,870	총접수액	47,923,590

조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골로사이서 3. 12~17/ 사도행전 1, 2장)
 일시 : 1997년 7월 27일(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5시
 문의 : (0527) 52-4241/53-3575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량진 본원
 준비물 : 신구약 합본 성서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본 특별 우대
-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 구 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 252-0103~4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 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5-0015~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 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기초반 · 메이크업반 · 연구반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0653) 841-2495, 855-8653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대회 환경부문 8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휠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블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222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자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 모임 안내: ① 울뜨레아-교동미사 후
②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납부의 날
③ 동그라미 불령회-23일(수) 후 9시, 63불령장
④ 전례부, 편집부, 테니스회-27일(주일) 교동미사 후
- 성전기금 마련을 위한 2차헌금: 오늘 있음
- 초등부 신앙학교: 22일(화)~26일(토), 성당 및 진안 오양공소
- 중·고등부 신앙학교: 22일(화)~27일(일), 성당 및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신앙학교 찬조금: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많은 협조바람.
- 차량 운행: 초등부 주일학생을 위해 차량운행하고 있음.
- 환영!: 본당 사도직 제형, 빅 히아친따 예비수녀님
- 축하!: ME 교육 수강-김정수·양옥남(아네스)부부
한연수(아오스딩), 김병혜(엘리사벳) 부부
- 유아 세례: 31일(목) 저녁미사 후 * 사무실에 신청바람.
- 첫영성체: 8월 15일(금) 교동미사 중 * 사무실에 신청바람.
- 청년 레지오 창단준비: 35세 이하 남녀신자 입단바람.
- 세넷가 원고: 좋은 글들 홍보부에 내주시기 바람.
- 금주 전례: 해설-김태경, 독서-김학덕(보나베티라) 부부
예물봉헌-박삼자(아오스딩) 부부
- 차주 전례: 해설-김학덕, 독서-박종립(베드로) 부부
봉헌-김두성(실바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542,510원 □ 교무금: 1,560,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너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 냉담교우에게 "쉴잠이"를 전달합니다!
- ◎ 오늘: 초등부 산간학교를 위한 2차헌금, 교무금 납부일
- 금주 모임: 꾸리아-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 주간 모임: ① 엠마우스 단합대회-26일(토)~27일(일), 진안 백운
② 자모회-24일(목) 초등부 산간학교에서(장수)
- 차주 모임: ① 애령회-공식미사 후, 2회의실
② 방주회 야외행사-전 8시, 성당집결
③ 청년공동체 모임-저녁미사 후, 4회의실
- 초등부 신앙학교: 21일(월)~23일(수) 전 9시부터, 성당
산간학교: 24일(목)~25일(금), 장수동화초등분교
* 신앙·산간학교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중·고등부 신앙대회: 25일(금)~27일(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축! 영명: 24일(목)-김크리스티나 수녀님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폐품 수집: 폐지(신문, 박스, 고책), 빈병(맥주병, 콜라병 등)을 수
집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바람.
- 성당부지 헌금 인입 감사!: 박은숙 5만, 익명 20만, 공정에 10만, 익명
60만, 오미연 20만, 설희순 10만, 권정숙 5만, 이남철 5만, 고명기 10만,
익명 20만, 이명숙 20만, 진희령 60만 누계-257,235,000원(425세대)
- 독서: 금주(새벽)-① 박기영 ② 김경숙, 차주-① 김병호 ② 노재실
금주(공식)-① 이동주 ② 박영실, 차주-① 이석철 ② 오성숙
- 미사 안내: 금주-자비의 모후Pr., 차주-성조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568,500원 □ 교무금: 1,722,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너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소계- 7,767단
누계-483,267단
- 초등부 신앙학교: 21일~24일(전 9~12시 30분)
* 24일은 물놀이 전 9시~12시 30분
- 중·고 신앙학교: 25일~27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준비물-조별로 통지함.
- 용머리 초막공동체: 26일~27일, 부안 청림야영장
* 프로그램 참조바람 * 전신자 참여 바람
* 성당 출발-26일 후 2시, 27일 전 8시
* 27일 미사-청림야영장에서 10시 30분
-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금주 전례: 해설-정희수, 독서-① 이종근, ② 강정자
- 차주 전례: 해설-박연식, 독서-① 심영배, ② 송화자
- 청소 봉사: 2구역 전례

□ 지난주 봉헌금: 924,900원 □ 교무금: 1,323,000원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 ◎ 초등부 여름신앙학교와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1일(월)~24일(목)
캠프: 25일(금)~26일(토)
②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 25일(금)~27일(일)
- 금주 모임: ① 낮미사 후-상지원 봉사
* 농민주일 2차헌금 있음.
- 구역방문: 21일(월)-삼정, 23일(수)-동신2차
24일(목)-화산2B, 27일(일)-평화
- 음악기초교실: 22일(화) 후 8시
- 구역 미사: 25일(금)-거성근영 2반
- 차주 모임: ① 낮미사 후-대진회, 성모회
② 낮미사 후-대의원 야유회
- 폐품을 잘 정리하여 가져 오시기 바람.
- 청소 봉사: 26일(토)-상지의 옥좌Pr.
- 폐품 정리: 26일(토)-자비의 모후Pr.
- 금주 전례: 새벽-유희정, 낮-이영순, 저녁-홍정의
- 차주 전례: 새벽-곽순옥, 낮-이영숙, 저녁-김영중

□ 지난주 봉헌금: 1,004,330원 □ 교무금: 1,515,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너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원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 ◎ 여름산간학교를 위한 2차헌금: 오늘 있음
- 여름 산간학교: 19일(토)~21일(월)
* 야외미사-20일(일) 10시, 진안 정천 조립초등학교
- 금주 모임: ① 사목회-25일(금) 후 3시
② 꼬미시움-26일(토) 후 3시
- 차주 모임: ① 전례분과모임-27일(일) 10시미사 후
② 구역형제회-27일(일) 10시미사 후
③ 울뜨레아-27일(일) 7시미사 후
④ 홍보분과모임-29일(화) 후 8시
⑤ 꾸리아-30일(수) 전 10시
⑥ 성모가시화-8월 2일(토) 전 10시
- 금주 성서 통독: 신약복음-요한복음
- 유아 세례: 26일(토) 후 4시
- 성소후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 진심으로 감
사 드립니다.
- 다음주 미사 안내 및 차(茶)봉사: 쌍용3A구역
- 전입가정 환영: 김경희(소피아)-효자동 213의1 T. 74-8734

□ 지난주 봉헌금: 1,405,320원 □ 교무금: 2,233,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환

-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5,225단, 누계-763,045단
- 금주 모임: ① 사목회-공식미사 후
②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 반회장 준비모임-25일(금) 10시미사 후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① 교리: 21일(월)~24일(목)
② 캠프: 25일(금)~26일(토) 1박2일, 임실군내 덕치초등학교
- 중등부 여름 신앙캠프: 25일(금)~27일(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 종합 교리: 통신교리 수료하신 분들과 예비신자 교리를 마친 분들
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29일(화)~8월 8일(금) 후 8시~9시
- 2차 신축헌금 인입액: 누계-5억 5천7백1십6만원
- 청년연합회 일일호프 수입금: 250만원
신자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 차주 모임: 성전신축 2차헌금 실시
승리의 여왕Cu., 요셉회
-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 김합열 ② 임혜영
봉헌 안내-유영균, 강선화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이종표, 독서-① 민병환 ② 이기순
봉헌 안내-최규화, 이준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846,080원 □ 교무금: 2,329,000원